

# “부처님 가르침은 실천해야 정답이죠”

## 여래사불교대학, 부산 안창병원 6백명 환우 위로연

환우들의 마음을 보듬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 수행하는 곳이 있어 훈훈함을 주고 있다.

부산 여래사불교대학(학장 목종) 수강생 및 총동문회 10여명은 2월 27일 부산 동구 안창병원을 위로방문하고 음악회를 열어 병마에 지친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여래사불교대학 학생들은 이날 9층에 걸친 병원 병실을 빠짐없이 방문해 환우들의 손을 잡고 말벗이 돼 따뜻함을 함께 나눴다. 이와 함께 부산불교정수회(여래사불교대학 졸업생 수향단체)와 함께 심시일반 모은 모연금으로 과일, 카스테라, 음료수 등을 마련해 전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6백여명의 환자와 간병인들은 여래사 불교대학에서 주최한 작은 음악회에서 잠시나마 병고의 아픔을 잊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작은 음악회에는 ‘제이엠 커뮤니케이션’ 소속 가수들의 열창과 색소폰 연주 등이 이어졌다.

환우들은 이날 병원을 방문한 여래사불교대학 학생들에게 거듭 고맙다는 말을 전하며 반가움을 표했다. 특히 불자 환우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은 것 같으며 활짝 웃기도 했다.

여래사 불교대학 신태균 교무처장은 “병원이 위치한 부산 동구 지역은 부산에서 낙후된 지역이며 특히 독거노인 및 어르신들이 많은 곳이다. 때문에 요양병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지긋한 분들이 많다”며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여래사 불교대학 소속 이수임(50)씨도 “병원에 할머니들이 많으셔서

### 심시일반 모연회 후원 물품 마련

### 2010년부터 매년 봉사활동

### 불법 실천하는 재가불자 양성 요람소

보기가 짝하고 마음이 아팠다”며 “범우들이 마련한 작은 정성에도 굉장히 고마워하고 좋아하시던 모습을 보고 오히려 우리가 더 행복했다. 불교대학에서 배운 부처님 법을 이런 기회를 통해 실천하며 부처님의 마음 역시 배우게 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여래사불교대학의 지역 나눔 실천은 이뿐만이 아니다. 2009년에는 독거노인들을 위해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직접 만들어



부산 여래사불교대학의 수강생 및 총동문회 10여명이 2월 27일 부산 동구 안창병원을 방문해 환우들에게 전달할 물품을 앞에두고 사진을 찍고 있다.

집집마다 방문, 이를 나눠주기도 했다.

1988년 부산불교교육원이란 이름으로 성제도 원장이 창건한 여래사불교대학은 재가자가 부산에 처음으로 만든 불교대학이다. ‘교육은 문명의 꽃이요, 문명은 교육의 열매’라는 만해 한용운 스님의 가르침을 이어가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 체계적인 강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현재는 조계종 신도전문교육기관으로서 불교를 기초부터 알기 쉽게 가르치고

바른 신앙의 길로 안내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조계종단에서 인증하는 포교사 과정도 수강할 수 있어 다른 불교대학들과 차별화·전통화를 꾀하고 있다.

강사는 학자인 대광명사 주지 목종 스님을 비롯해 금정중학교 이석언 교법사, 해동고등학교 안정수 교법사, 인제개발원 이육태 원장이 활동 중이다. 올해 학기 개강은 3월 12일이다. (051)466-4080

하성미 기자

## 올해 연등축제는 시민 함께하는 행사로

5월 1~ 25일까지... 부산 구덕운동장·용두산공원 일대서

불도(佛都) 부산에서 오는 5월 25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5월 1일부터 25일까지 연등축제가 열린다. 올해 연등축제는 전통문화를 고취하고 부산 시민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발돋움할 예정이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수불) 2015 부산연등축제조직위원회는 부산연등축제 결성법회를 3월 6일 코모도 호텔에서 봉행, 연등축제 기간 및 행사 내용을 결정짓고 협찬 출발을 결의했다.

부산연등축제조직위원회는 5월 1~3일 상정물 점등식 및 전통문화마당을 부산양정 송산정 광장에서 봉행하고 이어 11일부터 17일까지는 부산 용두산 공원에서 전통등(燈)전시회를 개최한다. 5월 17일 오후 4시에는 구덕운동장에서 봉축연합대회를 봉행한 후 같은 장소에서 출발해 부산근대역사관까지 제등행렬을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매년마다 진행한 ‘창작등 경연대회’를 ‘전통 창작등 공모전’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부산불교연합회에서 고증하고 복원한 전통등(燈)은 5월 13~24일까지 용두산공원 내 부산시립 용두산 전시관에서 선보인다. 이번 전통 창작등 공모전에는 부산광역시장상, 부산시의회의장상, 부산교육감상 등이 신설되며 전통 창작등(燈)의 계승과 보급을 위해 부산 유관기관들과 서로 협조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각종공연과 체험 행사 및 부대행사를 마련, 종교를 초월하여 부산시민과 불자들이 다함께 어울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을 수 있도록 시민 축제로 발돋움시킬 계획이다.

부산불교연합회는 “인류에게 진리의 등불을 밝혀주시 부처님의 높은 덕을 찬양하고 부산시민과 함께 고유전통문화이며 한국불교문화의 백미인 연등을 밝히는 축제를 봉행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불교연합회가 3월 6일 코모도 호텔에서 연등축제 결성법회를 봉행했다.

경연대회’를 ‘전통 창작등 공모전’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부산불교연합회에서 고증하고 복원한 전통등(燈)은 5월 13~24일까지 용두산공원 내 부산시립 용두산 전시관에서 선보인다. 이번 전통 창작등 공모전에는 부산광역시장상, 부산시의회의장상, 부산교육감상 등이 신설되며 전통 창작등(燈)의 계승과 보급을 위해 부산 유관기관들과 서로 협조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각종공연과 체험 행사 및 부대행사를 마련, 종교를 초월하여 부산시민과 불자들이 다함께 어울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을 수 있도록 시민 축제로 발돋움시킬 계획이다.

부산불교연합회는 “인류에게 진리의 등불을 밝혀주시 부처님의 높은 덕을 찬양하고 부산시민과 함께 고유전통문화이며 한국불교문화의 백미인 연등을 밝히는 축제를 봉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성미 기자

## “목표 이루기까지 해제는 없다”

### 조계종 부산연합회 소속 1500여 재가자 동안거 해제 수행 목표로 더욱 정진 다짐

동안거는 해제됐지만 수행의 열기는 식지 않았다.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수진)는 3월 4일 부산 동명불원(주지 화랑)에서 동안거 해제 법회를 봉행했다.

해제 법회에서는 수진 스님의 법문과 안거증 수여식이 진행됐다.

해제 법문을 통해 수진 스님은 “졸업이 끝이 아닌 시작이듯 해제 역시 또 다른 결제이다. 선사들은 화두를 깨 부처야 해제라는 단어를 용납한다고 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근기에 맞게 수행을 진행했는데도 목표한 것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목표한 바에 맞춰 계속 나아가야 할 것이다”며 독려했다.

재가자 동안거에 동참한 불자들도 해제를 했지만 계속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조계종부산연합회는 3월 4일 부산 동명불원에서 동안거 해제 법회를 봉행했다. 회장 수진 스님이 동안거 프로그램에 참여한 불자에게 안거증을 수여하고 있다.

부산 동명불원에 다니는 안소민(54)씨는 “동안거 기간 동안 경전 독송과 평소 애하던 관음정경을 계속 해왔다. 중간에 느슨해지기도 했지만 스님께서 틈틈이 챙겨 주셔서 마지막까지 마음을 다잡고 끝까지 해낼 수 있었다”며 “수행을 멈췄다가 다시 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에너지도 많이 필요하단 걸 알았다. 해제는 하지만 계속 수행을 이어나갈 것이다”고 각오를 다

졌다. 부산 대광명사 홍나정(49)씨도 “불교에 입문한지 얼마되지 않아 근기가 약한 편이었지만 도반들과 함께 해서 끝까지 할 수 있었다”며 “깨은 마음이 생길 때마다 마음을 다잡았다. 특히 <지장보살본원경>을 사경하면서 많은 변화를 경험했기에 해제했다고 수행을 멈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동안거 프로그램에 따라 108배를 매일 했다”는 미타선원 최진라(60)씨도 “그 덕분에 절을 해도 힘든 것이 없어지고 가볍하게 건강을 되찾게 됐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좋아지는 게 느껴진다”며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되면 앞으로도 꼭 참석할 것이다”고 소감을 전했다.

조계종부산연합회는 작년 12월 5일 입제 법회를 시작으로 재가안거수행 동안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재가 불자 1인 1일 수행을 정착시키고자 시작된 이번 재가안거수행은 조계종부산연합회 소속 16개 사찰에서 불자 1500여명이 동참했다.

조계종부산연합회는 이번 동안거를 시작으로 매년마다 안거 프로그램을 개설, 수행을 독려해나갈 계획이다. 하안거 수행은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진행된다.

한편 조계종부산연합회는 교육원 인증 과정 간화선 특강 ‘선요(禪要)’를 조계종 스님을 대상으로 3월 24~4월 21일 동안 개최한다. 강의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안국선원 교육관이다. (051)501-7554 하성미 기자

## 인재불사 ‘법계장학금’ 수여식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 설립... 지금까지 85명에게 2억여 원 수여

청도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이 불교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한 법계장학금 전달식이 3월 2일 운문사 경내 중무소에서 열렸다.

이날 전달식에는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 운문사승가대학 학장 흥륜 스님, 운문사 주지 진광 스님, 교무 원도 스님 등이 참석했다.

명성 스님의 법호를 따 설립된 법계장학회는 올해로 13회째를 맞았으며 지금까지 모두 85명의 스님과 불자학생에게 2억 1천3백만원의 장학금이 수여됐다.

이날은 동국 경주 캠퍼스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원행 스님을 비롯한 6명의 학인 스님과 불자학생 전상을 씨(일본 동경대 대학원 재학) 등 모두 7명에게 1인당 300만원씩의 장학금이 지급됐다.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은 “오늘 장학금을 받았다는 사실자체에 의미를 두지 말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불교발전에 공헌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기를 바란다”며 장학금의 의미를 설명했다.

법계장학금은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이 교회 논문 출판기념 축하금과 스님이 수행생활 틈틈이 마련한 기금을 바탕으로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이 3월 2일 불법공부에 매진하고 있는 장학생 7명에게 법계장학금을 전달하고 불교발전에 공헌해달라고 격려했다.

2003년 설립됐다.

이날 장학금을 받은 원행 스님(동국대 경주캠퍼스 석사과정)은 영광이라면서 “이를 계기로 더욱 열심히 심신수행과 불법공부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원광법사의 화랑정신이 깃든 국내 최대 비구니 교육도량 운문사는 몇 해 전부터 원광화랑연구소를 설립해 정기적으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화랑오계비를 경내로 옮겨 새로운 청년정신 계승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함께 장학사업을 통해 21세기 불교인재 육성의 산신인 인재불사에 매진하고 있다.

손은철 대구지사장

## 부처님 상

#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신행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http://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5가 120 동일하이빌 B1(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5분거리) Tel: 02)953-7181

## 사찰 연등 및 전선(별당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등간격:규격현조

설치가 편리한 고리형 후크

고추구 12E 3구 인지구 26E 4구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연등(등표)사다리

### 전선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 공단연등(고리용)

노형(노형지), 전분홍, 연분홍, 백색, 금색

연등규격: 4cm, 6cm, 7cm, 8cm, 10.5cm, 13cm, 20cm, 30cm

### 제등행렬 용품

일제사형, S형, T분리형, LED하형, LED홀하형, 견인지 초

▶원형,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